



해외석유정보

본 란은 해외석유산업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석유회사에서 발간중인 석유정보다이제스트 내용을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편집자 주>

일본내 Exxon-Mobil 계열 통합과 의미

「Market Service」 6월 1일 출범

일본내 Exxon-Mobil 계열회사 관련 발표내용을 보면 ①새로운 마케팅회사 설립과 마케팅위임계약, ②새로운 서비스회사 설립과 서비스위임계약, ③서비스상호제공계약 등 3가지이다.

새로운 마케팅회사는 Esso가 전액출자하고 사명을 Exxon-Mobil Marketing Service 유한회사(가칭)로 한다. Esso, General, Mobil은 동시에 연료유, 윤활유 등의 판매를 위탁한다. 새로운 회사의 종업원은 위탁하는 각 회사에서 채용한다.

판매계약체결에 따라 새로운 회사에 의한 판매는 위탁하는 각사를 대신해 시행된다. 각사는 새로운 회사의 청구에 의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코스트(주로 일반관리) 및 소요되는 코스트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를 지불한다. 보수산정에 있어서는 새 회사가 사업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서 독립 당사자간에 합의되는 보수로한다.

새로운 서비스회사도 Esso의 전액출자로 설립되는데, 사명은 Exxon-Mobil Business Service 유한회사로 하고 Esso, General, 東燃의 관리총괄부문(경리, 파이

낸스, 정보시스템, 홍보, 긴급시대응, 조달 등) 업무를 위탁받는다. 새로운 회사의 종업원은 각사에서 뽑고 보수는 Marketing Service유한회사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서비스상호계약(MSA)은 Esso, General, Mobil, 東燃 등 4개사가 체결하고 물류, 공급, 정제계획 Logistics 관련 계획 등의 기능을 보완한다. 책임자가 임명되고 계약 당사자인 각사는 Staff를 임명하고 개개의 계약 당사자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업무를 실시한다.

각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회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상응한 관련시설 코스트와 함께 상대방에 청구한다. 계약기간은 처음에는 3년으로 하고 그 후에는 각사가 6개월의 예고기간을 갖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들 사업조직의 간소화, 효율화에 따라 종업원수를 4사에서 총 약 730명 규모로 감축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 조기퇴직자우대제도를 실시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인건비절감액은 약 120억엔 정도가 될 전망이다.

또, Esso, Mobil, Exxon화학 등 3개사는 2월 18일을 기해 회사조직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상호를 변경한다. 동시에 Exxon화학, Esso 선박, Mobil 해운도 같은 날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다. 유한회사는 회사운영상 주식회사보다 관리코스트가 적다는 메리트가 있다.

이익최우선 조직

Exxon-Mobil은 합병시에 ①사업코스트 절감을 동반하는 자본이용효율 증대와 주주가치 성장, ②장래 고객에 대한 경쟁적 가치에 의한 질 높은 제품의 계속적인 제공, ③ 대형기업과 충분히 경쟁가능한 기술·경영자원을 갖추고, 미국에 본거지를 두는 major한 글로벌기업의 탄생-이라는 3가지 점을 추구해야 할 효과로 내걸었다.

Exxon-Mobil의 지시는 전세계에 걸쳐있는 Family가 관계되어 있는 석유개발에서 판매에 이르는 모든 사업을 11개의 각기 다른 Global business개념하에 재구축한다는 것이었다.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그들이 내놓은 회답은 미국에 본거지를 둔 Exxon-Mobil을 정점으로 전세계를 종적 사업체로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일본내 Exxon-Mobil 계열 4사의 사업통합 방법도 이 전략하에 실시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본의 상관습에 의존하지 않고, 일본의 법체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Exxon-Mobil의 전략에 적용하는 통합이란 무엇인가가 판단기준이었다고 한다.

현재 합의한 회사는 極東(교꾸도)석유공업을 제외한 4사인데, 이것은 極東의 또 다른 대주주인 三井(미쯔이)물산의 승낙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업형태를 「유한회사」로 했다는 것이다. 모회사인 옛소석유나 모빌석유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다고 한다.

그 이유에 관해 회사관계자는 '이사가 한 사람이면 되고, 대표권을 가지는 임원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 일일이 영업상태를 공고할 의무가 없고 주식회사에 비해 서류작성업무도 줄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유한회사」는 사업자금을 모으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Exxon-Mobil이 background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부분도 해결 가능하다는 점도 「주식회사」를 고집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이로서 국내최대 자본규모(옛소 200억엔, 모빌 110억엔)를 자랑하는 「유한회사」가 탄생하는 것이다.

계열점과의 관계

Exxon-Mobil계열 4사의 감축 인원수는 4사 전체적으로 약 2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석법폐지후 Esso는 350명, 제네럴석유는 5백명, Mobil 석유는 300명의 인원을 감축했었다. 그리고, 이번에 730명의 인원을 감축했었다. 그리고, 이번에 730명을 줄여 전체적으로 3,000명 정도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Exxon-Mobil 그룹의 글로벌 전략이다. 조직개혁을 통한 자본의 효과적 활용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이익을 넣는 것은 인력이 아니라 조직과 브랜드 라는 발상이다.

Exxon-Mobil의 새로운 조직이 일본내 대리점이나 특약점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Esso, Mobil, General석유의 브랜드를 유지하지만 소매 부문은 Esso출신자, 산업용연료유나 운할유부분은 Mobil출신자가 Head에 앉기로 되어있다. 한편, 대리점 체질을 보면 Esso 계열에서는 소규모점이 많은데 반해 Mobil계열에서는 대형점포이고, sub 점포를 갖는 업자가 많다. 판매점 정책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향후 이것을 통일해야 한다.

새로운 판매회사의 인원규모가 얼마나 될지 아직 모르지만, 인원감축으로 세일즈맨 1인이 담당하는 주유소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더욱 복잡해지는 계열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2월 1일부터 옛소, 제네럴석유, Mobil석유는 각각 계열점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아직 새로운 조직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 장이 Exxon-Mobil의 신조직과 계열점의 새로운 접점의 시작이 된다. 이 부분이 Exxon-Mobil의 새로운 일본내 조직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Exxon-Mobil 계열 4사는 작년 12월 중순 검토시작에서 1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새로운 조직을 정비했다. 단, Exxon-Mobil 계열도 코스트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시장에서 수익을 올려 본국에 송금하는 기계만 되고자 한다면, 일본내 중소경영자는 그들에게 있어 더 이상 이익창출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야 한다.

〈연료유지신문, 2000. 1. 27/1.29〉

북한, 몽골, 스리랑카의 석유산업

에너지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UN통계 Energy Statistical Yearbook 1995에 의하면 95년 북한의 에너지 생산량은 62.60(석유환산 100만 메트릭톤, 이하同), 소비량은 68.51이다. 생산·소비 공히 95년까지는 그다지 변동이 없다. 에너지자급률은 95년 현재 91.4%이다. 국산 에너지의 대부분은 석탄이다.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농업생산도 인력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International Energy Annual 1997에 의하면, 북한의 석유소비량은 1997년 현재 4.5만 b/d 이다. 최근 9년간의 추이를 보면 1988년 6.5만 b/d, 89년 6.4만 b/d, 90년 7.3만 b/d, 91년 7.6만 b/d, 92년 7.4만 b/d, 93년 7.2만 b/d, 94년 7.0만 b/d, 95년 6.3만 b/d, 96년 4.8만 b/d로 9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92년부터는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95년부터는 감소세가 큰 것이 특징이다.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이용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석유생산은 없다. 96년 원유 수입량은 2.3만 b/d, 석유제품 수입량은 2.5만 b/d 정도였다. 제품수입 내역은 96년의 경우, 자동차용휘발유 1.2만 b/d, 등유 0.1만 b/d, 유출연료유 0.6만 b/d, 잔사 연료유 0.6만 b/d 이다. 현재 북한이 소비하는 연료나 곡식중 상당량을 미국이 공급하고 있다.

북한은 99년 1월 1일 현재, 국영석유회사의 정유공장 1기와 웅기 정유공장 1기, 총 2기에서 7.1만 b/d의 정제능력을 갖고 있고 0.7만 b/d의 접촉개질시설도 보유하고 있다. 2개 정유공장은 96년 현재 총 2.3만 b/d의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내역은 자동차용휘발유 0.8만 b/d, 등유 0.1만 b/d, 유출연료유 0.9만 b/d, 잔사연료유 0.4만 b/d, 기타 0.1만 b/d 였다.

각국의 주목을 끄는 몽골의 고비사막

몽골의 국내정치상황은 불안하다. 경제는 위기상황을 탈출하여 회복기조에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본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사회상황도 많은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

UN 통계 Energy Statistical Yearbook 1995에 따르면, 95년 몽골의 에너지 생산량은 1.73(석유환산, 100만메트릭톤, 소비량은 2.33였다. 생산·소비 공히 95년까지는 감소추세에 있어, 추운 나라 치고는 에너지 소비량이 적지만, 이것은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비상업적 에너지 소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쨌든 95년의 상업 에너지 자급률은 95년 현재 74.2% 이다.

International Energy Annual 1997에 의하면, 몽골의 석유소비량은 1997년 현재 1.2만 b/d 이다. 최근 9년간의 추이를 보면, 1988년 1.7만 b/d, 89년 1.7만 b/d, 90년 1.6만 b/d, 91년 1.5만 b/d, 92년 1.3만 b/d, 93년 1.3만 b/d, 94년 1.3만 b/d, 95년 1.1만 b/d, 96년 1.2만 b/d로 감소추세에 있다. 소련 붕괴에 의해 석유공급선이 끊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이용은 97년 현재 거의 없다. 96년 석유제품 수입은 1.2만 b/d인데, 전량 국내소비물량인 듯 하다. 그 내역은 자동차휘발유 0.4만 b/d, 등유 0.1만 b/d 유출연료유가 0.6만 b/d, 잔사연료유가 0.1만 b/d였다. 몽골에는 현재 정유공장은 없다. PE誌, 98년 3월호에 따르면, 몽골은 동년 2월에 중국 몽골자치구에 대한 원유수출을 시작한 것 같다. 수출량은 350배럴이다. 현재 몽골의 확인매장량은 6억배럴이라고 한다. Gulf Canada 와 Australia 의 Roc Oil 양사는 공동으로 몽골 동남부에 있는 고비 사막 동부광구와 확인매장량 600만배럴의 Tsagaan Els 유전의 개발권을 취득했다. 또한 England 의 Soco International 은 Territorial Resources 와 절반씩 남부 고비의 Soco 지구의 탄광개발권을 취득했다.

스리랑카의 국내석유생산은 Zero

International Energy Annual 1997에 의하면, 스리랑카의 석유소비량은 1997년 현재 5.5만b/d 이다. 최근 추이를 보면 1988년 3.4만 b/d, 89년 3.1만 b/d, 90년 3.5만 b/d, 91년 3.4만 b/d, 92년 3.7만 b/d, 93년 4.1만 b/d, 94년 4.5만 b/d, 95년 4.8만 b/d, 96년 5.3만 b/d로 증가추세에 있다. 파이프라인 경유 천연 가스 이용은 적어도 97년 현재 전무한 상태이다. 석유생산도 없는 상태이다. 96년에 원유 4.1만 b/d, 석유제품 1.5만 b/d 정도 수입했었다. 한편 0.4만 b/d의 석유제품이 수출되고 있다.

스리랑카에는 99년 1월 1일 현재, 국영 석유회사 Ceylon Petroleum Corp.의 Sapugaskanda 정유공장이 4.75만 b/d의 정제능력을 갖고 있고, 열분해장치 1.1만 b/d, 접촉개질장치 0.3만 b/d 시설도 보유하고 있다. 이 정유공장은 96년 현재 총 4.2만 b/d의 석유제품을 생산했다. 내역은 자동차휘발유 0.5만 b/d, 등유 0.4만 b/d, 제트연료유 0.1만 b/d, 유출연료유 1.2만 b/d, 잔사연료유 1.5만 b/d, LPG 0.1만 b/d, 기타 0.5만 b/d 였다. 96년 스리랑카의 국내석유소비량은 5.3만 b/d 이다. 내역은 자동차휘발유 0.5만 b/d, 등유 0.5만 b/d, 제트연료유 0.4만 b/d, 유출연료유 2.1만 b/d, 잔사연료유 1.4만 b/d, LPG 0.3만 b/d, 기타 0.2만 b/d이다.

〈Oil Report, 2000. 1. 24〉

일본, 특석법 폐지후 경유수입업자 증가

특석법폐지후 국내외가격차가 큰 휘발유의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원매회사의 계열유지 노력 등으로 특석법폐지와 동시에 '96년 4월에 이토추상사, 全農, 나카가와물산만이 수입업 신고를 했을 뿐, 그 후 더 이상 신고하는 회사는 없었다. 그러나, 99년 들어 종합상사인 마루베니가 신고하는 등, 휘발유 신규수입업자는 4개사로 늘었다.

등유수입업자는 99년 들어 5개사가 추가되어 20개사로 늘었다. 98년 하반기에는 100만kl를 수입하는 등 신규수입업자는 수입에 적극적이었고, 99년에도 수입이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후 국제시세가 오르고, 일본 국내의 계열외제품 거래시세가 하락해 수입을 보류하는 신규업자가 늘고 있다. 그 때문에, 2000년 초반의 등유수입은 급감했다. 98년 하반기 실질적인 100만kl를 맡돌 전망이다.

신규수입업자가 가장 활발하게 신고를 한 것은 경유업자이다. 특석법폐지 첫해인 96년에 종합상사 등 5개사만 신고하고, 97년, 98년 상반기까지 신고가 없었다. 그러나 98년 하반기부터 신고가 급증, 99년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고, 2000년 들어서도 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99년 들어서부터 경유수입업 신고를 한 업자는 36개사를 기록하고 있어 98년까지 다른 유종 신고업자를 제외하더라도 30개사를 넘는 급증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유수입사는 이토추상사, 미쓰비시상사, 나카가와물산, 카네마쓰 등 4개였지만, 99년 들어 마루베니가 가세해 5개사가 되었다.

2월중순까지 신규 수입업자는 휘발유 4개사, 등유 20개사, 경유 52개사에 달하고 있다. 중복을 피하면 4년 가까운 기간동안 56개사가 신규 참여한 셈이 된다. 그 중 종합상사로 는 미쓰비시상사, 이토추상사, 마루베니, 스미토모상사, 카네마쓰, 닛쇼이와이 등 6개사이다. 기타 상사로 는 토요다통상, 大東통상 등이 등이 참여하고 있고, 상사계 특약점으로는 이토추연료, 마루베니에너지, 단체로는 全農, 全漁連, 대형 특약점은 카메이, 林兼석유 등이 있다.

〈연료유지신문, 2000. 2. 25〉

러시아의 석유산업 현황

작년 여름의 휘발유부족 사태

1999년 여름, 러시아에서는 심각한 휘발유 부족사태가 발생했었다. 지방도시에서는 주유소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차가 장사진을 이루었고, 주유대기고객과 주유소 사장과의

마찰이 빈번히 일어났었다. 급기야 주유소 운영을 둘러싼 살인사건도 일어나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했었다. 원인은 원유가 상승으로 석유회사가 국내공급보다 해외 석유수출을 늘려 국내 공급분량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긴 했지만, 국내시장에 대한 안정 공급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모순을 드러낸 것으로 현재 러시아경제의 실상을 대변하는 모습들이다.

러시아의 경제위기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GDP 증가율은 1997년에 시장경제 이행 후 처음으로 플러스 0.8%를 기록해 상승세로 전환되고, 공업생산도 1.9% 증가했지만, 1998년 GDP증가율은 다시 마이너스 5% 정도로 추락했다. 이것은 재정난 타개를 위한 정부지출 삭감과 함께, 금융·자본시장 혼란으로 금융중개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루블화 하락에 따른 제품가격 급등으로 1998년은 연평균 80% 가깝게 상승했다.

또한, 1998년 후반이후 러시아의 대외채무 변제는 일부 정치상태에 있다. 러시아가 안고 있는 대외채무는 총 1,400억\$, 예전에 구소련으로부터 물려 받은 채무는 변제가 안 되고 있어, 채권국회의(Paris Club), 민간채권은행단(London Club)과의 교섭은 그다지 진전이 없다. 1999년 2월에는 신용재벌 인터로스 그룹의 중추은행인 오네크시 은행이 97년에 유로시장에서 발행한 달러 기준 채권에 대한 변제불능 우려까지 표면화되어 유로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었다.

인터로스 그룹은 세계제일의 니켈 회사인 노리리스크 니켈, 대형석유회사인 시단코를 인수했는데 그룹 대표인 포타닌은 전직 제1부수상으로 활약하면서 정치·경제부문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런던에서 채권자측과 오네크시 은행과의 채무 순연교섭이 성립되어 default(채무불이행)선언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서방 투자가의 러시아에 대한 불신감은 한층 더 깊어졌다고 한다. 게다가, 1999년 4월에는 달러화 기준 국제 12억\$의 상환도 불능상태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러시아의 채무변제능력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재정기반 확보를 위해 법

인세 인하나 부가가치세 개혁을 내걸고 있지만,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고, 해외자금 도피도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를 복잡하게 한 것은 1999년 3월 하순부터 시작된 NATO의 코소보 공습이었다. 공습에 대해 러시아가 반대해 결과적으로 미국주도의 IMF지원교섭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미국, IMF, 세계은행이다. 1999년 코소보 분쟁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를 고립시켜 서는 안된다」라고 발언하는 등, 그 발언에는 유고의 코소보 공습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 유가노프 공산당위원장의 영향력 증대와 보수세력 확장에 따른 러시아의 시장경제노선 이탈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 있다. NATO군의 유고 공습에 반발하여 3월에 프리마코프가 미국 방문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하순에는 강드쉬 IMF 총재, 4월중순에는 올핀슨 세계은행총재 등의 잇따른 러시아 방문에 의한 IMF의 지원 재개와 계속되는 일련의 노력이 계속된 것은 그러한 사정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4월 28일 성립된 러시아와 IMF와의 기본합의에서는 2002년 2월까지 IMF로 부터 새로운 융자 45억\$가 실행되어, IM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되고, 세계은행으로 부터는 23억\$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MF는 융자실행에 있어서 재정적자삭감을 위해 러시아의 구조개혁에 관해서 엄격한 조건을 달고 있는데, 특히 경제 관련 법안에 포함된 휘발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6월 상순에 러시아하원에서 심의가 시작되지만,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 정치세력인 공산당의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러시아 경제 상황중 희망적인 것은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1999년 4월 이후, OPEC, 멕시코, 노르웨이 등의 협조감산으로 원유가격이 급등하고, 아시아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경수수지 base의 흑자 누적은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증가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1997년 플러스 성장에서 1998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락했던 경기동향도 순조로운 공업생산으로 1999년 들어 성장세로

돌아섰다. 원유가격은 99년 2/4 분기 이후 순조롭게 회복되었다. 우랄 원유의 지중해 인도가격이 98년말 10.4\$/B로 바닥을 탈피한 이래, 1999년초부터 조금씩 반등해 4월에는 14.27\$/B, 8월에는 20\$대까지 올랐다.

1999년 7월에는 신외국투자법이 발효되었다. 여기에는 소위 'Grandfather조항' 이나 투자프로젝트조항 등도 포함되어 있는 등, 외자유치촉진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적자는 1999년 예산에서는 GDP대비 2.5%로 IMF와의 합의사항인 2.8%를 밑돌고 있고, 실제로 1999년 상반기에는 작년 동기대비 마이너스 0.7%를 기록했지만, 1999년 전체로는 원유가격 상승이나 루블화 하락에 의한 수입대체산업 회복에 의해 대폭 회복했다고 한다. 단, 1999년 국가 예산 자체가 동년중에 변제해야 할 175억\$의 대외채무증분은 95억\$ 뿐이고 나머지 80억\$은 Reschedule(채무변제 연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정부의 도대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석유수출제 도입

1991년 소련 붕괴 다음 해인 92년에 대통령령에 의해 국영석유회사, 국영가스회사의 주식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시작되었다. 1996년에는 PS(생산분여계약)법이 발효되어 외국자본의 석유개발참여에 대한 법적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에는 여전히 정치·경제정세 불안으로 Country risk가 존재한다. 법제도의 실시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이권료 등도 빈번히 개정되기 때문에 구미각국의 석유산업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러시아에는 Luk Oil을 비롯해 구 국영석유 회사에서 민영화된 석유회사가 주요회사만해도 13개나 있다. 현재로서는 모든 국영석유회사는 민영화된 상태이다. 석유의 생산·정제, 수송, 판매는 지역마다 복리후생도 포함시켜 생산합동이라는 형태를 취해 실시되고 있고, 주식의 매각이 점차 진행되고 있다.

석유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의 80%정도의 고율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기자재가격 양등이나 임금 상승에 의해

대부분의 석유기업활동이 적자상태에 있어, 석유회사 관련 세금은 거의 납부되지 않고 있다.

허가된 기업에만 원유수출을 인정하던 특별수출자제도가 1995년에 폐지되어, 모든 석유기업은 생산량에 따라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 1월에는 석유수출세가 도입되었는데, 시장경제 이행에 따른 석유기업의 경영자유도 향상이 그 의미라 할 수 있다. Luk Oil을 비롯한 8개사가 석유수출조합을 결성했는데,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석유 시장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러시아의 석유회사 및 가스회사는 92년 이후 국유기업에서 주식회사로 바뀌어 정보 보유 주식이 민간에 매각되어 민영화가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가스회사에서는 가스프롬, 석유회사에서는 루크오일 등의 상위 기업이 탄생했지만, 신흥재벌그룹의 사업확대를 위한 인수에 의해 경쟁력이 약한 석유회사가 속속 생겨나는 결과를 낳아 현재로서는 루크오일, 스루그트네프레가스, 유코스, 타트네프치, 시단코, 튜메니석유, 시부네프치, 바시네프치, 로스네프치, 스라부네프치, 동시베리아석유, 오나미, 코미텍등의 주요 13개 석유기업이 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소규모 석유회사의 탄생은 효율성을 저하시켜 경영이 어려운 기업도 적지 않다.

또한, 신흥재벌간 불건전한 관계도 형성되고 있는데, 전술했던 시단코는 신흥재벌인 인터로그룹의 일원이고, 시부네프치는 베레조프스키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수익력이 약한 석유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정부는 1999년 4월 국가주도로 로스네프치 등의 중견석유회사를 통합하는 업계재편을 실시해 경영효율화를 추진했다. 정부는 1999년에 석유수출세를 도입했는데, 수출세율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와 강력한 connection 관계에 있는 대형 석유회사 등 업계 전체가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법인세, 지하자원 이용세를 경감하여 경영부담을 줄여 2000년 이후는 러시아 전체에서 연평균 1~2% 정도의 원유생산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Oil Report, 2000. 2. 14〉